

IL-YANG newsletter  
2026 Summer  
vol.330

www.ilyang.co.kr



Teamwork is the secret that makes common people achieve uncommon results.  
- Ifeanyi Enoch Onuoha -

팀워크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달성하는 비결이다.



# 일양 가족

IL-YANG newsletter  
2026 Summer  
vol.330

www.ilyang.co.kr



# IL-YANG CONTENTS

2026 Summer vol.330

의약기술 100년 도전...  
신뢰, 도전, 창조였습니다.

[www.ilyang.co.kr](http://www.ilyang.co.kr)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이땅의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21세기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양약품 계간 매거진  
일양가족  
**2026년 여름호**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인 정도연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94(도곡동)  
일양빌딩 02-570-3844

디자인 다룸팩토리  
인쇄 두원인쇄공사



<b>04</b>	<b>80주년 기념식사</b> 80주년 기념식사	<b>22</b>	<b>일양법규</b>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b>32</b>	<b>그녀들의 수다</b> 한마음 대행진
<b>06</b>	<b>일양지점소개</b> 약리독성팀 - 실내 스카이다이빙	<b>24</b>	<b>전지적 일양기행</b> 인천 대이작도	<b>34</b>	<b>건강한호기심</b>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의 노하우
<b>12</b>	<b>한 사람의 이야기</b> 한 편의 시, 한 사람의 이야기	<b>28</b>	<b>일양속보</b> 원비-디 중국 수출 재건	<b>36</b>	<b>이랑사랑퀴즈</b> 이랑사랑퀴즈
<b>18</b>	<b>일양슈퍼루키</b> 회계팀 심명보 사원	<b>30</b>	<b>일양리포트</b> PPI제제 끝판왕 '놀텍'	<b>38</b>	<b>일양뉴스</b> · 독감백신 접종 식약처 허가

# 창립 80주년 기념식사



**80년 신뢰, 100년을 여는 혁신**



## 친애하는 일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양약품 창립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1946년 창립 이후 지난 80년 동안 일양약품은 오직 한 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약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걷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기업의 역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약산업 본연의 길을 지켜온 시간이며, 더 좋은 약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이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함보다 본질을 선택해왔습니다.

유행보다 신뢰를 지켜왔고, 단기적 성과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회사는 신념으로 성장합니다.”

매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끝내 살아남고 존경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지켜낸 철학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기업에게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좋은 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반복되는 연구와 검증, 실패를 견디는 시간,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원칙,

그리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일양약품의 가치가 되고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변화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산업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으며,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혁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입니다.

연구개발의 기본, 품질의 기본, 윤리의 기본, 고객 신뢰의 기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제약”이라는 우리의 초심입니다.

앞으로의 일양약품이 단순히 오래된 회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일양약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회사와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인가.”

기업의 미래는 특별한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생산 현장에서, 영업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일양약품의 미래입니다.

## 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8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여는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제약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양약품다운 길.”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 빠르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끈기,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 저는 그것이 바로 일양약품의 자부심이라고 믿습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아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일양약품 대표이사 사장 정 유 석

# 협동심 향상 팀 빌딩 프로그램 : 실내 스카이다이빙

## 약리독성팀

“ 2026년 뜨거운 여름! 일양약품의 약리독성팀과 함께 했다. ”

### 약리독성팀과 함께하는 여름.

2026년 여름을 맞아, 홍보팀은 약리독성팀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약리독성팀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이어가는 조직으로, 꼼꼼한 업무 수행과 팀원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팀 프로그램은 색다른 도전과 짜릿한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이었다. 바람을 가르며 공중에 몸을 맡기는 순간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팀원들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팀장과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웃음과 열정이 가득했던 이번 체험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함께 도전하고 소통하며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약리독성팀이 보여준 밝은 에너지와 단단한 협력의 모습 속에서, 올여름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완성되었다.



좌측부터 주현수 수석, 이원재 책임, 윤효정 책임



**약리독성팀 활동 프로그램 : 실내 스카이다이빙**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은 강한 바람을 이용해 실제 하늘을 나는 듯한 부유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색 스포츠로, 짧은 순간 안에서도 집중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도전에 대한 용기를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특히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자세를 유지하고 몸의 중심을 조절해야 하는 만큼, 참가자 간의 응원과 신뢰, 배려가 함께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약리독성팀은 이번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에 참여해 새로운 방식의 팀 활동에 도전했다. 활동은 안전교육과 기본 자세를 익히는 시간으로 시작해, 실제 바람 속에서 몸을 띄우는 체험 순서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체험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중에 몸을 맡긴 채 균형을 잡아가는 순간마다 현장에서는 웃음과 환호가 이어졌고, 팀원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활기찬 에너지가 퍼져 나갔다.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 간 이해와 소통의 폭이 더욱 넓어졌으며,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경험은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체험은 약리독성팀이 평소 보여주는 탄탄한 조직력과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함께 도전하고 웃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든 이번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 앞으로도 약리독성팀이 보여줄 밝은 에너지와 끈끈한 팀워크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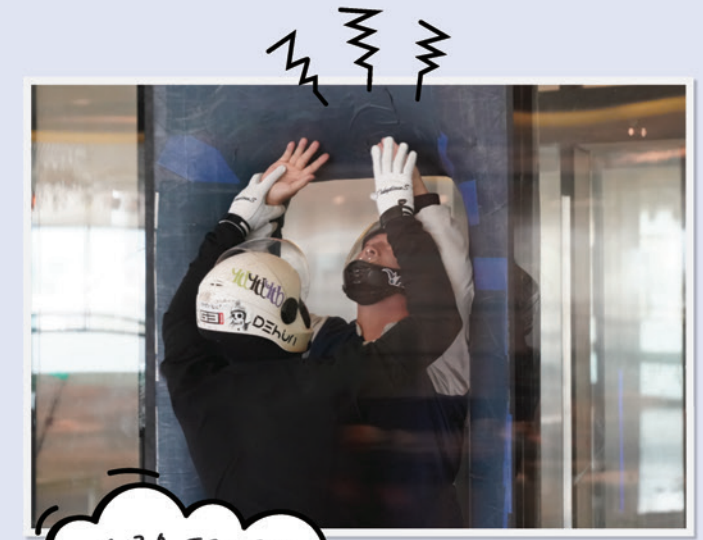


**Q 약리독성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약리독성팀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비임상 시험 전반을 담당하며, 후보 물질의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성1·2팀에서 전달받은 신규 물질의 효능을 평가하고, 마우스와 랫드를 활용한 약동학 시험을 통해 체내에서 약물이 얼마나 흡수되고 유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반복투여 독성시험을 진행하여 일정 기간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독성과 투여 적정 용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1상 승인 (IND)을 위한 비임상 자료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약리독성팀만의 자랑·자부심은 무엇일까요?**

약리독성팀의 가장 큰 자부심은 신약 개발의 첫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출발점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보 물질이 실제 의약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판단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작은 데이터 하나에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인 시험 결과로 입증하여 임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신약 개발의 든든한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환자들의 건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팀원 모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약리독성팀만의 자부심입니다.



**Q** 약리독성팀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약리독성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임상 시험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만큼, 모든 시험과 결과를 신중하고 윤리적인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팀원 모두가 시험 과정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기준 점검, 연구 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올바르고 신뢰받는 연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작은 과정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로, 생명을 다루는 연구의 의미와 가치를 늘 되새기며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약리독성팀 대표하는 마스코트 같은 팀원 분, 또는 개성이 넘치는 팀원 분이 계신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약리독성팀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같은 팀원으로는 이원재 책임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장한 체격에서 느껴지는 든든함과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연구원으로, 팀 내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책임감이 뛰어나 항상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시며, 힘든 순간에도 유쾌한 분위기로 팀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약리독성팀의 분위기를 더욱 밝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팀의 대표적인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더욱 밝고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Q** 약리독성팀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보람찬) 순간은 무엇인가요?

약리독성팀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오랜 시간 진행해 온 시험 결과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완성되어, 실제 신약 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반복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가 임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물질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다음 단계로 이어질 때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게 느껴지며 가장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약리독성팀 모두에게 큰 동기이자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P-CAB IY-828026이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 팀으로서 정말 보람찬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Q** 약리독성팀에 일양약품이란?

약리독성팀에게 일양약품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하며 신뢰와 가치를 이어온 터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일양약품은 수많은 도전과 연구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기업인 만큼, 그 여정의 한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약리독성팀 역시 이러한 80년의 연구 정신과 책임감을 이어받아, 신약 개발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람의 건강과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약리독성팀이 생각하는 일양약품의 모습입니다.



# 한 편의 시,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세  
환  
감  
사



1998년 일양약품 중역실 감사로 재직했던 이세환 감사는  
1935년 4월 11일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인창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과 경영에 대한 깊은 소양을 쌓았습니다.  
1971년 3월 일양약품에 입사하여 1998년 6월 퇴사하기까지  
약 27년간 회사와 함께하며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업무 자세로  
많은 임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사보에서는 이세환 감사의 시를 통해 그분의  
따뜻한 시선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밀린 사연

이렇게 맑고 좋은 날  
가을의 투명한 햇살을  
누구에게 보낼까  
내 좋은 사람!  
아깝지 않은 친구  
너는 네가 그림졌고  
나는 네가 보고 싶네

어느 시골 잣나무골  
조그마한 학교에  
선생님으로 떠났지  
이리도 아름다운 날  
詩 쓰기 참 좋겠네  
나에게 보내 주게나  
읽고 보고 다정다감한 글  
보고싶고 그림네 친구야

## 가을의 미소

시월의 하늘엔  
꽃구름과 함께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하얀 억새꽃이 부르는 발판에  
기러기 두루미가 찾아오고  
낙엽지는 산속엔  
청설모 다람쥐가 바쁘다  
별빛 쏟아지는 이 밤도  
은하수엔 조각배 띄우고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흥이 났구나  
봄은 俗人이 가을은 哲人이  
마냥 즐기고  
나는 가을에 미소 짓는다



눈이 녹을 봄은 가라앉아  
4월은 꽃을 초대하고  
꽃들은 봄을 반겼지  
새로운 민들레  
보랏빛 제비꽃  
서둘러 먼저와 있었네  
산새는 노래 하고  
나비도 춤으로 추네  
햇살에 흠뻑 적은  
매화 목련 진달래도  
미소 짓고 있구나  
꽃들의 잔치날 이기에...

꽃들의 鄉(향연)



# 싼타 할아버지께 동시

어제 여긴 눈이 내려  
 앞산에도 마당에도  
 많이 쌓였어요  
 조심히 오세요  
 엄마 아빠가 설날에  
 좋은 일 많이 하라셔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예쁘고 귀여운  
 착한 내 동생  
 바비 인형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내년엔 학교에 가는데  
 예쁜 가방 주시면  
 친구한테 자랑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잠자고 있을때  
 오실건가요  
 자지 않고 기다릴게요  
 크리스마스 날이  
 기다려 지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꽃밭 동시

안마당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꽃씨를 심어놓고  
 물 주고 도닥 도닥  
 예쁘게 피우라고  
 봄에 피는 봄꽃씨  
 여름엔 여름꽃씨  
 가을날에 갈꽃씨  
 계절마다 예쁘게  
 그림! ---  
 벌하고 나비하고  
 춤추며 오겠네요  
 너무 너무 좋아라  
 정말 너무 좋겠다  
 뭉게구름 웃네요  
 빨리 와라 봄아씨

# 마음

행복이라는 것  
 고요한 가을 밤  
 하얀 자작나무 숲속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반 ---  
 달과 별들  
 은하수를 보고 있으면  
 잠을 자지 않아도  
 꿈을 꾸는것 같다  
 오늘밤 이대로  
 멎었으면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 하겠네

# 꽃밭에서

예쁘다 참 이쁘다  
 후미진 이곳에  
 활짝 웃고 있는 너  
 무심히 서 있어도  
 누가 웃지 않으랴  
 널 보고 ---  
 별도 웃으며 찾아 오고  
 나비도 춤을 추는구나  
 해바라긴 해를 보고  
 달맞이꽃 달을 보며 빙그레  
 별꽃은 별들이 떨어졌나 봐  
 봄꽃은 날 미소짓게 하고  
 가을 꽃은 나를  
 哲人으로 만드네  
 그리고  
 너는 곤충들도 유혹하니  
 너도 나도 웃고 있다  
 꽃밭 한 가운데  
 아름다운 날이더라



# 패러다이스

오스트리아 어느 시골  
 구름도 한 조각 없네  
 가을가에 앉아  
 만발한 꽃을 본다  
 두 아이 두 여인

가을 건너 넓은 초원  
 새풀 뜯는 하얀 양떼  
 양모려 개만 혼자 바쁘다  
 한가로운 목동은  
 꽃핀 마로니에 나무아래  
 팔베개로 하늘 보며  
 흥겨운 요한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를  
 발가락으로 장단 맞추네

모두가 샤갈의 그림 같다  
 참 HAPPY해 보인다  
 여기가 패러다이스 인가 싶네  
 벌과 나빈 이 꽃 저 꽃 드나들고  
 나도 행복해 진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며

# 대웅전주인

부처님 뵈고자  
 꼬불 꼬불 오솔길 지나  
 언덕에 바윗길 오르며  
 구름 바다(雲海)  
 파도 치며 흐른다  
 지금은 해 뜨는 새벽  
 떠나올때  
 가지말라 붙잡던 안개  
 이젠 걷혀 파란 하늘

땀 흘리고 찾아오니  
 높이 앉아 미소 짓는  
 인자하신 부처님  
 눈빛으로 반기시고  
 춘하추동 낮과 밤을 ---  
 텅 빈 대웅전엔  
 중생들의 번뇌로  
 잠 못 이루시리

# 가을의 정취 情趣

시월이 어느새 끝나고 있네  
 설악산 단풍은 마무리겠다  
 낙산사 단풍 한참일거야  
 오대산 적멸보궁 앞산도  
 활 활 불타고 있겠지  
 강릉 오죽헌 앞 들은  
 얼마나 고울까  
 북한산에도 반쯤은 물들겠다  
 창경궁 나무들도  
 색동옷 갈아 입겠지

햇별이 깊숙히 들어온 거실  
 차탁위 예쁜 커피잔  
 향기도 김도 모락 모락  
 그것도 단풍인듯 ---  
 창밖 귀여운 애기 단풍  
 가을 별이 따갑다 하네  
 난 화사한 가을 정취를  
 눈을 지그시 감고 음미한다  
 낭만의 계절 가을은  
 이렇게 영글어 가고 있구나

# 늙은 소나무

구름도 머물다 가는  
 높은산 비탈 아래  
 벼랑 끝 바위 틈  
 비스듬히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외롭구나  
 그래도!  
 두 백년을 버텼네

풍광 아름다운 이곳  
 잔잔히 江물 위  
 원앙식구 노닐고  
 고기떼 오르내리네  
 산비둘기 쉬었다 가고  
 밤마다 부엉이가  
 무슨 생각 고민 하나

오늘 밤도  
 老松 가지에 솔방울  
 별빛 쏟아지는 소리  
 듣고 싶다네  
 오래 오래



이번 일양가족지 봄호에는 일양 사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입사부터 포부까지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앞으로 멋지게 성장해 갈 일양가족을  
함께 응원하길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계팀 심명보 사원을 소개합니다.

입사일 2025년 7월 7일 소속 회계팀  
담당업무 결산 보조 및 회계 관리 등 MBTI ISTJ



ROOKIE



회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다양한 부서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향상된 업무수행을 위해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을까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은 많지만,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AI 데이터분석 방향입니다. 우선, 일상적인 업무부터 회계 처리까지 저희 부서의 모든 업무는 데이터가 좌지우지합니다. 또한, 국내·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창출될 수 있고, 이러한 변수가 회사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AI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회계팀 생활에 필요한 업무 역량은?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신중함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잘못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의 성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업무 활동 내에서는 신중하고 꼼꼼한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효율성입니다.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을 중요시하고, 친구들과 만남을 좋아하여,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많은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끝내고자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나요? 혹은 듣고싶은말.**

함께 일하면서 힘이 나고 재밌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 포함 다들 다양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텐데, 저랑 같이 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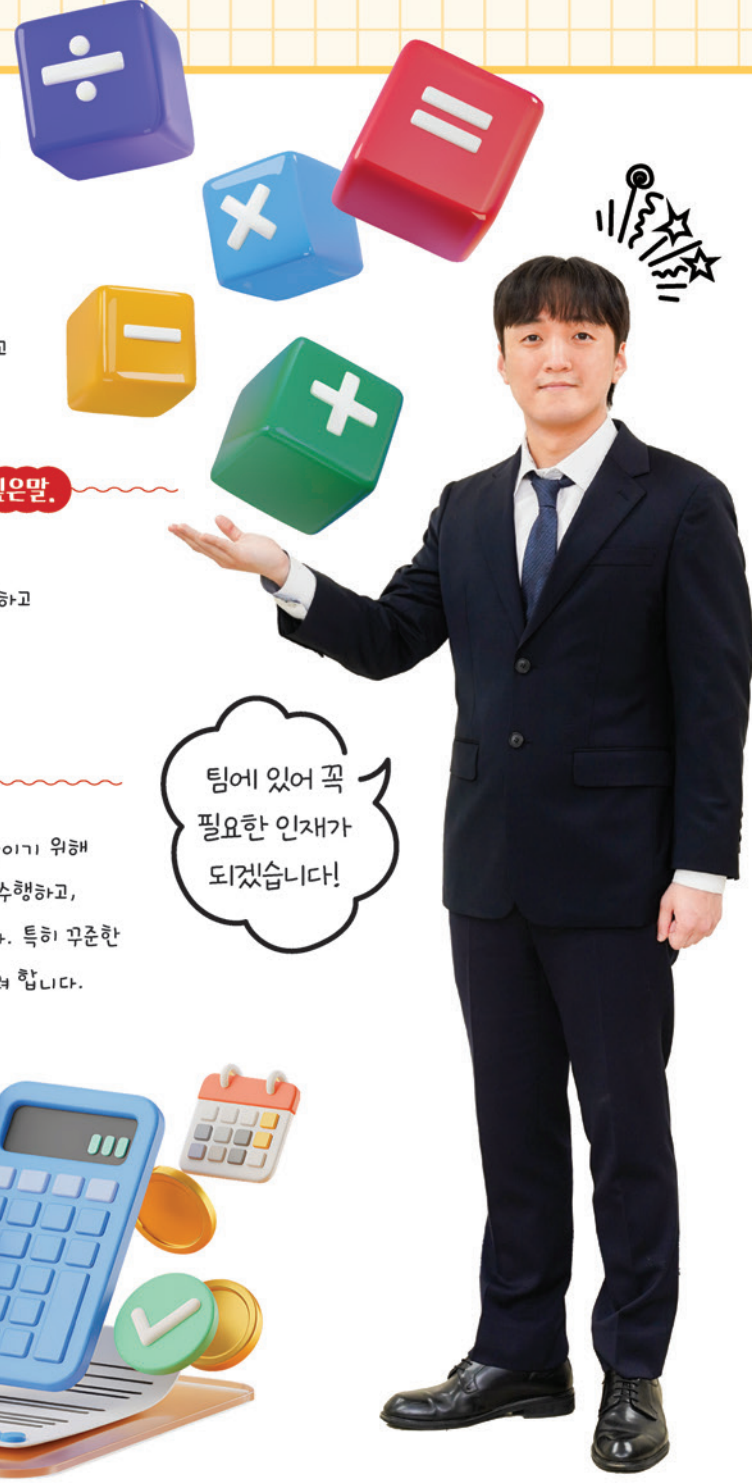
**직장생활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직장생활과 개인 생활의 균형은 업무의 효율성과 삶의 만족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시간에는 맡은 일에 집중해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퇴근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려 합니다.

팀에 있어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우명이나 인생철학이 있으신가요?**

제 인생철학은 "꾸준함은 결국 신뢰를 만든다"입니다. 화려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맡은 일을 꾸준히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이 결국 오래 신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사생활에서도 작은 업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당장의 결과에 조금해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나 관심 있는 활동이 있나요?**

평소 풋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친구들과 시간이 맞을 때마다 종종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앉아 있지만 하다보면 풋살을 함으로써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하루 연차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하루 연차가 생긴다면 평소 미뤘던 작은 여유를 가장 먼저 즐기고 싶습니다. 늦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온전히 쉬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영통발달 논제!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더 선호하는 복권은?**

**인생은 한방 로또복권 VS 인생은 장기전 연금복권**

복권에 당첨된다면 연금보단 로또복권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연금형보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회계팀과 일양약품에 한마디**

첫 직장생활만큼 저희 팀 뿐만 아니라, 일양약품의 많은 사우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배려를 받은 만큼,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 COMPLIANCE PROGRAM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로 약칭)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1. 리베이트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료인 및 거래처에 금품, 향응, 편익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약사법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회사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편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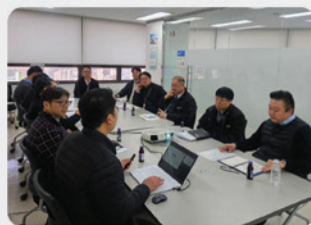
### 2.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품의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은 객관적이고 검증된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전달이 요구됩니다.

### 3.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과도한 요구, 불공정한 거래 강요 등은 모두 지양해야 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6.02.02 CP실무위원회



26.03.04 마케팅실 교육



26.03.20 ETC팀소장



26.04.17 OTC사업부 신입사원



26.04.22 임상1팀



26.05.07 임상2팀, PV팀



26.05.21 CP실무위원회



##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 ✔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위법 행위는 없습니다.
- ✔ 작은 편의 제공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모든 업무는 “투명성”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4.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

경쟁사와의 담합, 가격 협의, 시장 분할 등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 경쟁에 임해야 합니다.

### 5. 내부 신고 및 사전 예방 체계 운영

위법 또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용 확인!

OX 5문항으로 정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홍보팀: 임채정 계장 / cjim@ilyang.co.kr] 정답을 모두 맞추어 주신 **선착순 5분께 커피 쿠폰(1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제외한 의료인 및 거래처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 O , X )
2. 제품의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된다. ( O , X )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O , X )
4.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시장을 나누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 O , X )
5. 위법 또는 부적절한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내부 신고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조직의 리스크 예방에 도움이 된다. ( O , X )

# 하루에 두 번, 바다가 내준 모래섬 인천 대이작도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40분. 대이작도 큰마을 선착장에 내리면 승객들이 뿔뿔이 흩어져 이내 고요해진다. 옛날 해적들이 숨어 살아 이적도(夷賊島)라 불렀던 섬. 그 이름이 무색하게, 모래가 곱고 바다 색이 푸른 해변 세 곳이 섬을 에워싸고 있다. 작은풀안 해변, 큰풀안해변, 계남해변. 그중 작은풀안해변 서쪽 끄트머리에서 풀등으로 가는 배가 뜬다.

선착장으로 가는 길은 해안절벽 아래 조성된 데크 산책로다. 이 길에서 무려 25억 1천만 년 전에 생성된 암석과 마주친다. 땅속 깊은 곳에서 열을 받아 녹아내린 흔적이 검게 얼룩져 있다.

산책로 끝 정자에 서면 풀등이 보이기 시작한다. 물이 빠질수록 모습이 점점 넓어진다. 햇볕에 반짝이는 모래가 신기루처럼 떠 있다. 드론으로 내려다보면 거대한 가오리가 바다를 유영하는 형상이다. 어느 날은 뱀장어처럼 길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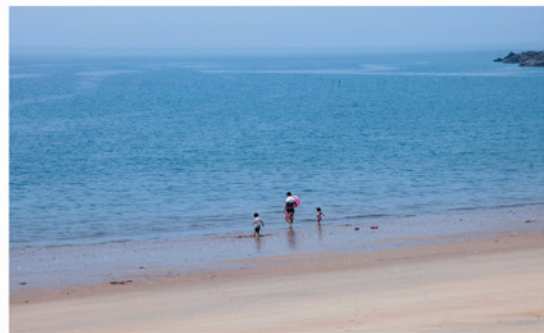
정자 아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5분 만에 풀등이 도착한다. 풀등은 길이가 약 3.59km, 폭이 1.15km에 달하는 모래섬이다. 하루 두 번, 썰물 때만 물 위로 드러난다. 밀물이 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국내에 풀등과 비슷한 지형이 더러 있지만 실제로 밟을 디딜 수 있는 곳은 풀등뿐이라고.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3시간 남짓 드러난다.

섬은 아니지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 사막은 아니지만 광활한 모래밭이 펼쳐진다. 풀등 이야기다. 풀등은 바닷물에 숨어 있다 하루 두 번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낸다. 시시각각 모래밭의 면적이 넓어지거나 줄어드는 광경은 바다가 부리는 마술 같다.



**대이작도**

**가는 법** 연안여객터미널과 대부도 방어머리선착장(차량 도선 가능)에서 여객선 이용.  
**예약** '가고싶은섬'앱 / 신분증 지참 / 여객선 도착 시간과 풀등 썰물 때를 미리 확인할 것.  
**풀등 도선** A코스(총 40분/풀등 체류 불가, B코스(총 1시간/ 풀등 체류 가능)  
**요금** A, B코스 모두 성인 3만 원, 소인 2만 원.  
**예약 문의** 010-2480-1155  
**섬 내 교통** 대중교통 없음. 펜션과 식당에서 픽업 서비스 제공.  
 대이작도 선착장에서 작은풀안해변까지 걸어서 40분.





선착장 앞 큰마을 전경과 오형제바위 해안생태탐방로



부아산 정상 표지석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얼른 양말을 벗고 이제 막 바닷물에 말갹게 씻겨 드러난 풀등 위에 조심스레 발을 내디딘다. 감축이 흠바닥처럼 단단하고 서걱거린다. 물이 얇게 고인 곳을 꼭 밟으니, 발이 쑥 들어가며 발자국 웅덩이가 생긴다. 낯설고 신비한 모래섬.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깡충깡충 뛰던 영상이 문득 떠오른다. 광활한 모래밭 한가운데 홀로 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진다. 그냥 잘 마른 모래 위에 앉는다. 어떤 이는 캠핑용 의자를 가져와 짧은 휴양을 즐긴다. 한정된 인원만 허락된 풀등은 전용 해변처럼 한갓지다.

눈 밝은 일행이 주먹 두 개만 한 소라와 골뱅이, 게, 조개를 찾아 보여준다. 해양생태보호구역이니 그대로 두고 올 수밖에. 어느새 풀등이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소라와 골뱅이가 바다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전에 발자국을 하나 찍어두고 싶어진다.



대이작도 오형제바위 해안생태탐방로



대이작도 오형제바위 해안생태탐방로



오형제바위 해안생태탐방로 안내판

부아산 구름다리(좌)와 하트해변(우)



부아산 정상 구름다리 뒤로 풀등이 보인다



섬 중앙에는 부아산이 솟아 있다. '아이를 품은 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정상 근처까지 찾길이나 있어 오르기 어렵지 않다. 찾길 끝에서 정상 표지석까지 도보 약 15분 거리다. 울퉁불퉁한 바위투성이 길이라 운동화를 챙겨 신길 잘했다 싶다. 붉은 구름다리를 건너면 전망대에 서면 소무의도, 덕적도, 승봉도, 사승봉도, 소야도 같은 인천 연안섬들이 층층이 펼쳐진다. 조금 더 시선을 낮추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가 만든 하트 해변을 발견한다. 하산길에 부아산 입구 삼신할미 약수터에 들러 약수 한 바가지를 마신다. 고려 때부터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전해오는 생명수라는데, 목이 말랐던 터라 그냥 꿀맛이다.

인천행 배에 오르기 전, 짬을 내어 오형제바위에도 들른다. 큰마을 앞 해안생태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갯벌 구간이 나오고, 해안절벽 아래 해송 숲이 이어진다. 울창한 숲 사이로 갯바위에 올라앉은 정자가 보인다. 정자에 올라 손을 뻗으니, 소이작도가 잡힐 듯 가깝다. 탐방로가 끝에 바위 다섯 개가 하늘을 향해 손가락처럼 뻗어 있다. 고기잡이 나간 부모가 돌아오지 않자 효성 깊은 오형제가 슬피 울다 망부석이 됐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기다림이 돌이 된 자리에서, 섬의 오랜 시간을 느낀다.



선착장 앞에 '이작횃집'(032-834-9944)이 있고, 펜션의 숙박 패키지(1박 3식 등)를 이용하면 편하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멀지 않은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대를 이은 노포가 많다.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면 유니짜장으로 유명한 '신승반점'(032-762-9467)을, 시원한 메뉴를 찾는다면 인천 대표 평양냉면 '경인면옥'(0507-1404-5770)과 줄 서는 맛집 '청실홍실 신포본점'(032-772-7760)의 판모밀국수와 통만두를 추천한다.

# 『원비-디』 완제품 - 중국 수출 재건

## 중국 사업 재건 본격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 발판



**길림성 창춘시**

면적 약 20,600km<sup>2</sup>  
 인구 약 906만 명  
 주민 한족, 만주족, 조선족, 후이족, 몽골족, 시보족 등 38개의 민족으로부터 구성  
 특징 ·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FAW Group 본사가 위치  
 · 중국의 디트로이트(Detroit of China)로 불릴 만큼 자동차 산업이 발달

창춘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산업 중심지이자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역사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지린성의 대표 도시입니다.

인삼 드링크의 대명사인 『원비-디』 완제품을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위치한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를 통해 수출하며 중국 사업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수출은 중국 청산실업과의 미배당이익금 및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일양약품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첫 번째 사업 성과로,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의 경영권과 사업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 진행된 의미 있는 행보다. 이는 중국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이자 향후 안정적인 경영 기반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수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비-디』의 '상표권'을 확보한 점이 크게 작용하여 중국 시장 재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사업 재건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및 제약시장 중 하나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원비-디』를 중심으로 한 일양약품의 중국 사업 확대는 향후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비-디』는 1971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인삼 드링크로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대표 브랜드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국내를 뛰어넘는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제품으로, 정통 고려인삼의 우수한 효능과 철저한 품질관리, 차별화된 제품력이 더해지며 중국 소비자들 사이 『원비-디』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원비-디』의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해 세계적인 인삼 드링크 브랜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 PPI제제 끝판왕 '놀텍', 안전성 기반! 지속 성장!



김영주 PM      권기환 팀장      김완훈 PM

최근 PPI(프로톤펌프억제제) 복합제와 P-CAB(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 등 다양한 제품군이 맞붙고 있는 소화기용제 시장. 이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여전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품목이 있다. 바로 일양약품의 간판 품목인 '놀텍(성분명 일라프라졸)'이다. 놀텍은 출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복합제 등 라인업 확대에 적극 나서며 독보적인 경쟁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ETC PM 1팀의 권기환 팀장과 김영주, 김완훈 PM을 만나 국산 신약 놀텍의 성공 비결과 향후 새롭게 추가되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성장 요인은 3세대 PPI로 독보적 제품력

놀텍은 2008년 국산 신약 14호로 허가받은 3세대 PPI 제제로, 최근 P-CAB과 PPI 복합제가 경쟁하는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 생산실적 기준으로 2023년 445억 원, 2024년 463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처방 현장에서 높은 신뢰를 입증했다. 놀텍의 강점은 높은 산해리상수(pKa)에 기반한 빠른 약효 발현과 긴 혈중 반감기다. 이를 통해 하루 한 번 복용만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제공한다. 권기환 팀장은 "놀텍은 기존 PPI 제제 대비 우수한 위산 분비 억제력을 보이며, 특히 야간산 분비억제실패(NAB)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내 pH를 장시간 4.0 이상에 가깝게 유지해 야간 통증과 산 역류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양약품의 간판 품목인 놀텍정(일라프라졸)

##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 기반한 제품력...환자 반응도 체감

놀텍의 또 다른 강점은 간 대사 효소인 CYP2C19에 의존하지 않는 독특한 대사 경로에 있다. 주로 비효소적으로 대사되고 일부만 CYP3A4를 통해 대사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낮아 다양한 약물과의 병용 처방에 유리하다. PM들은 "일례로 고령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클로피도그렐 계열 항혈전제는 CYP2C19 효소에 의존적 대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PPI와 병용하면 경쟁적 저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놀텍은 대사 경로가 달라 병용 처방 시에도 매우 안전하다"며 "이러한 안전성이 다른 PPI 제제 및 P-CAB제제와 차별화되는 놀텍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언급했다. 권기환 팀장은 "놀텍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차별화된 안전성"이라며 "기존 PPI는 물론 최근 등장한 P-CAB 제제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타사 PPI를 장기간 복용하던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놀텍으로 전환한 뒤 증상이 크게 개선돼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만성 질환 환자들 입장에서 장기 복용 시 우려되는 부작용과 내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양약품 소화기팀은 명확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선을 그었다. 김완훈 PM은 "H2 블로커(위산분비억제제)의 경우 한두 달 사이에 내성이 발생해 고용량으로 증량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PPI는 오메



프라졸 출시 이후 지난 30~4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H2블로커처럼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내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학계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며 "또한 유럽 다국가·다기관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후향적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PPI 장기 복용과 위암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 소화기 제품군 전반의 포트폴리오 대폭 확대

현재 시장에서 순항 중인 놀텍 단일제와 복합제 놀텍플러스정에 이어, 식약처 허가 심사 중인 저용량 복합제 '놀텍플러스미니(일라프라졸 10mg+제산제)'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놀텍플러스미니는 최근 분기 처방액 20억 원을 돌파한 고용량 복합제 놀텍플러스의 후속 제품이다. 김영주 PM은 단일제와 복합제 간 일부 환자군이 겹치지만 역할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놀텍 단일제는 위장관 질환 치료와 함께 위장관 출혈 예방 영역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놀텍플러스 라인업은 초기 미란성 식도염 환자의 빠른 증상 완화와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놀텍은 검증된 장기 안전성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제 시장을 유지하면서 복합제 라인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완훈 PM 역시 장기 복용 시 안전성이 놀텍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권기환 팀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국산 신약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놀텍 패밀리는 '3세대 PPI의 최종 진화형이자 끝판왕'으로서 처방 현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팀 자체적으로도 놀텍 라인업 확장에 그치지 않고 소화기 제품군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가장 다채롭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시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놀텍플러스정

# 자연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순간 '곤지암 화담숲'

그녀들의 수다 - 한마음 대행진



## 따뜻한 햇살을 따라 나선 곤지암 화담숲 방문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발걸음 속에서 그녀들의 수다는 한층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이어졌다. 계절의 기운이 가득 담긴 화담숲은 지금 이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연의 풍경을 선사한다. 싱그러움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사진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풍경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순간의 감동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자연 속을 함께 걸으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졌다. 입구를 지나 숲에 들어서자 순간, "이런 곳에서 이야기 나누니 정말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곳곳의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로의 모습을 담아주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한 휴식이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난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여유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숲 사이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전망 공간에서의 순간들은 이번 계절을 대표할 장면으로 남았다. 자연 속에서의 편안한 시간과 이어진 식사는 하루를 더욱 알차게 완성해주었다. "그녀들의 수다"는 이번에도 활기쳤다. 자연과 함께한 시간, 숲 속에서의 여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웃음이 어우러지며 그것이 곧 추억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 되었다.



생산2팀 남궁윤지 사원

이른 아침, '한마음 대행진'을 위해 동료들이 하나둘 모였을 때부터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껏 꾸민 모습으로 만난 동료들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들뜬 모습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기 전부터 시작된 가벼운 수다 덕분에 광주(경기)로 향하는 길은 지루할 틈 없이 즐거웠습니다. 설렘을 안고 정성으로 가꾸어진 화담숲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동료들과 업무 얘기가 아닌, 소소한 일상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한 주제 없이 톡톡 내뱉는 말에도 웃음이 터지고, 지나가는 다람쥐를 보며 감탄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편안하여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가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온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긴장감이 아닌 숲 속의 나른함 속에서 만난 동료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따뜻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밑에서 나란히 발을 맞춘 이 기억은 꽤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거리감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길 기대하며 다음 야유회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생산2팀 이다연 사원

따뜻한 날씨 속에서 입사 후 처음으로 함께한 한마음 대행진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화담숲에서는 푸른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동료들과 사진도 찍고 대화를 나누며, 업무로만 마주하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더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었고, 서로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바쁜 업무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료들과의 친밀감은 앞으로의 업무에 더욱 열심히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이러한 뜻깊은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 속 활력 관리, 비타민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 바쁜 현대인을 위한 비타민 건강 습관

비타민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비타민은 에너지 생성, 면역 기능, 신체 회복, 뼈 건강,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역할에 관여하지만 대부분 체내에서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타민B군은 에너지 대사와 활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D는 뼈와 치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햇빛 노출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로감, 컨디션 저하, 활력 부족 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균형 있는 식단과 함께 비타민을 꾸준히 챙기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비타민은 건강한 식습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완하는 역할에 가깝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타민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함께, 비타민 섭취를 돕는 제품 정보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햇빛과 함께 생활 습관 관리하기

비타민D는 햇빛 노출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 활동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면 보다 건강한 생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꾸준한 섭취 습관 만들기

비타민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 루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팝핑 입안에서 터지는 맛있는 비타민! 팝핑프리미엄비타C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멀티비타민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팝핑프리미엄비타C'는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항산화에 필요한 비타민C 250mg과 활력 에너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sub>2</sub>,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D<sub>3</sub>를 함유한 3종 멀티비타민 영양제이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식품 등을 통한 꾸준한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팝핑프리미엄비타C'는 이러한 필수 영양 성분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팝핑 타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틱포를 개봉해 입안에 넣는 순간 팝핑 터지는 재미와 상큼한 레몬맛이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 심심할 때 간식처럼 즐기면서도 영양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일상 속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쁜 일상 속 활력과 건강을 보다 맛있고 재미있게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린다.

# QUIZ TIME

## 이랑사랑능력퀴즈 내가 부서인원 모두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쏜다

이랑사랑능력퀴즈는 팀원 중 한 사람이 문제를 모두 맞춰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 주시면 그 팀원이 속한 팀 모두에게 정답자의 이름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단, 최대 10장[1만원권]까지 가능합니다.)

이랑사랑능력퀴즈 문제풀이를 통해 우리 회사에 대한 지식도 쌓고 팀원들에게 한턱 내는 선심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봄호  
당첨자 소개



분석연구팀  
최아영 수석

일양가족지 2026년 봄호 '이랑사랑 능력퀴즈' 정답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평소 가족지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즐겨 읽어왔는데 당첨의 행운까지 얻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팀원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나누고 싶어 몇 번 도전했으나 매번 실패하여 아쉬웠는데 드디어 목표를 이뤄 무척 뿌듯합니다.

보내주신 커피쿠폰은 팀원들과 여유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늘 알찬 소식으로 가족지를 만들어 주신 홍보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호도 기대하며 애독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추어 주신 선착순 1팀께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사장님 훈사에서 단순기술 도입이 아닌 00를 활용한 업무를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2글자는?
2. 칸테크 SM사업부에서 생각하는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 3가지는?
3. 26년 봄호 '일양가족체험'으로 과일따기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험에 진행된 과일은?(2글자)
4. 26년 봄호 '일양가족체험'이 진행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장소의 명칭은?
5. 26년 봄호 일양루키의 취미는?
6. 지난 3월 생활건강사업본부에서 참여한 박람회 명칭은?
7. 홍보팀 임채정 사우가 휴가를 맞아 다녀온 나라는?
8. 000의 보조 치료와 진정에 있어 도움을 주는 비습관성 수면유도제인 자멘속정.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9.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은 자사 개발 중인 P-CAB 계열 신약 후보물질은 1Y- 000 000이다. 빈칸에 들어갈 6자리 숫자는?
10. 26년 봄호에 소개된,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국 전용 의약품 직거래 플랫폼의 명칭은?

# IL-YANG NEWS IN KOREA

독감백신 '생후 6개월 이상 3세 미만 소아' 접종 식약처 허가

## 독감백신 '생후 6개월 이상 3세 미만 소아' 접종 식약처 허가

생후 6개월 이상 전 연령층 접종가능



자사 독감백신이 '생후 6개월 이상 3세 미만 소아' 투여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로써 일양약품 독감백신은 3가와 4가 모두 생후 6개월 이상 전 연령층에서 접종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국내 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에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독감백신 수요는 공공 분야인 NIP와 민간 분야로 나뉘며, 공공 분야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실수요 접종자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세 이상 소아·청소년·성인에게 접종하던 독감백신의 연령층이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생후 6개월 이상 3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되면서, 공공 분야인 NIP 공급 수주 물량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수익성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백신 완제 라인을 증설하였으며, 남반구 유행 권장 균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연중 가동이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과 국제 입찰 참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음성 백신 공장